스위스 윈터 스토리.

토박이들의 겨울 스토리

체르마트 토박이 밴드의 겨울나기
빙하 마을 스노우슈 선구자를 따라서
스위스 겨울 호수와 사랑에 빠진 영국 사나이
세계적인 스타가 기다리는 고향 스키장

스위스 사람들이 보내는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스위스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겨울마다 뒷산에서 스키와 썰매를 타고 자라난 이들에게 겨울 스포츠는 그 자체가 무궁무진한 스토리다. 이들이 품은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한다.

1. 눈과 음악이 하나 되는 곳,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에서 활동하는 밴드, 윈터스홈(Wintershome)을 소개한다. 체르마트에 첫눈이 내리면 팝-포크 밴드 윈터스홈은 연주를 쉬는 날을 점점 늘려간다. 이들은 마테호른(Matterhorn) 산자락에 있는 마을, 체르마트에 산다. 겨울은 그야말로, 그들의 열정이고, 노래를 위한 영감은 자연 속에서 찾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유럽에서 가장 고도 높은 스키장으로 향해 다양한 슬로프와 다운힐 구간을 즐긴다.

체르마트는 마테호른 산자락에 있는 마을로, 웅장한 산봉우리가 에워싸고 있다.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산악 마을로, 겨울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되어준다. 항상 눈이 쌓여 있는 슬로프와 현대적인 스키 리프트, 끝없는 하강 코스가 잊지 못할 눈밭 모험을 선사해 준다.

토박이들의 겨울나기
체르마트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피르민 추어브리겐(Pirmin Zurbriggen)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1980 년대에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뛰어난 선수였던 피르민 추어브리겐은 40 개의 월드컵 우승을 거두었으며,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스키 레이서다. 반면 그의 자녀들은 스키 선수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결정하고, 대신 다른 열정을 좇았다. 그게 바로 음악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엘리아(Elia), 마리아(Maria), 피르민 주니어(Pirmin Junior) 3 남매와 이들의 사촌 로메인(Romaine), 조엘(Joel)는 가족 행사 때마다 함께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 종종 만들던 음악이 그 이상으로 변모한 것은 2012 년 크리스마스 때다. 밴드가 결성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은 악기를 선물받게 되고, 부모들은 작은 밴드 연습실도 마련해 줬다. 드럼이 겨우 들어가는 방이었다. 커버 곡을 시작으로 자기들만의 노래를 써나갔다. 2018 년 밴드는 첫 앨범을 발표하면서 발레(Valais) 지역 출신의 패밀리 밴드가 스위스 음악 세계에 큰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긴 휴식기를 가진 뒤, 2022 년 여름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것이 다시 불을 지폈다. 멤버들 스스로에게도 이게 바로 계속 해나가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음을 먹으니 결과물도 재빠르다. 2023 년 봄에 싱글을 발매하고 2023 년 가을에 바로 2 집 앨범 “빌로우 제로(Below Zero)”를 발매했다. 노래는 심오하다. 영혼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지며 개인의 운명과 삶의 의미를 성찰한다. 하지만 이들 다섯 명의 멤버 중 누가 곡을 쓸까? “보컬이든, 기타든, 가사든 누군가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러면 모두 의견을 내고 함께 곡을 완성해요. 이런

방식이 우리의 음악을 차별화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죠.” 로메인이 질문에 답한다. 또 다른 특징은 다섯 멤버가 모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성 창법과 조화로운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죠.” 윈터스홈의 리드 보컬, 마리아 마초네(Maria Mazzone)가 말한다.

밴드 이름은 고향과 겨울 및 스키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것이다. 함께 음악을 만들 때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잊는다는 그들이다. 자연 속을 거닐 때처럼 마음도 자유롭게 떠돌며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음악을 만들 때 우연을 허락해요.” 로메인이 말한다. 그들의 음악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다. 부드러운 사운드가 포크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와 목소리가 평온함을 가져다준다.

스키 천국 체르마트

웅장한 산봉우리, 눈, 빙하에 둘러싸인 체르마트는 다섯 밴드 멤버들에게 고향이다. 살갗에 부딪히는 얼음 같은 바람을 느끼고, 눈 덮인 산을 바라보고, 발에는 스키를 신은 모습, 이게 바로 그들의 세상이다. 하지만 겨울은 시즌 그 이상을 의미한다. 안식처이자 휴식을 취할 기회, 노래를 위한 영감이 바로 겨울이다. 체르마트와 스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동자가 반짝이는 걸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간이 날 때마다 스키를 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체르마트에는 많은 스키 코스가 있는데, 약 200km 에 달하는 슬로프가 수넥가-로트호른(Sunnegga-Rothorn),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 세 구간에 펼쳐진다. 블랙 슬로프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하강을 즐길 수 있는데, 경사도가 60% 이상이다. 좀 더 여유로운 슬로프에서도 그만큼 멋진 뷰를 즐길 수 있어서 모든 이에게 적합한 슬로프를 찾을 수 있다. 스키장의 다양한 코스 덕분에 그만큼 다채로움도 보장된다.

“여기에서는 하루 종일 스키를 타도 같은 슬로프를 두 번 이용하게 되진 않아요.”라고 마리아가 체르마트 스키장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

밴드 최애 슬로프

로메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꼽는 슬로프는 28 번 슬로프로, “하얀 토끼(White Hare)”로 불리는 구간이다. 이 슬로프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이유로, 이들의 할아버지가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호흐탤리(Hohtälli) 상부 역에서 시작하는 긴 레드 슬로프로, 짜릿한 다운힐 구간으로 이어지다가 회전감이 뛰어난 구간이 곳곳에 등장한다. 피르민은 도전적인 걸 좋아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슬로프는 8 번으로, “오베레 나시오날(Obere National)”이다. 블랙 슬로프로, 최대 경사도가 약 61%에 달하는 코스로, 다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

스키장이 누구에게나 만족감을 주지 않았다면 이만큼 유명하고 인기 있지는 않았을 거다. 도전적인 가파른 슬로프 외에도 사람이 붐비지 않고, 여유로우며,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슬로프를 찾을 수 있다. “슬로우 슬로프”라고 표시된 슬로프는 특히 초보자와 서두르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적합하다. 여기서는 자기만의 속도로 방해 받지않고 스키를 탈 수 있다.

신나는 스키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계곡 아랫마을로 다운힐 하는 것이다. 해발고도 3,883m 유럽에서 제일 높은 케이블카 역,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특히 길다. 고도차가 2,263m 이상이 나며, 방해 없이 전 구간을 질주할 수 있다. 좀 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마리아의 조언을 따라보자. 마리아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슬로프는 14 번으로

“쿰메(Kumme)”라 불린다. 블루 슬로프로 로트호른(Rothorn)에서 쿰메까지 완만한 다운힐이 이어진다. 계곡 아래로 다운힐을 즐기고 싶다면 14 번에 이어 15 번, 9 번, 2 번 슬로프를 차례로 따라가서 체르마트 마을까지 내려갈 수 있다.

11 월부터 시즌 시작
체르마트 스키장이 인상적인 이유는 사이즈뿐만이 아니다. 체르마트의 시즌이 특히 긴 이유도 있다. 눈 상황이 허락하는 한 슬로프의 겨울 왕국 풍경은 11 월 초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5 월 초까지 이어진다.

산속 미식의 즐거움
신선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허기를 불러오는 것은 없다. 슬로프를 따라 위치한 다채로운 레스토랑과 스키 산장에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체르마트는 미식 체험으로도 유명하다. 스위스 전통요리부터 세계적인 레스토랑까지, 체르마트는 미식 레스토랑의 밀집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

스키 월드컵 시즌 오프너
스키 월드컵이 11 월 “그란 베카(Gran Becca)” 코스에서 시작된다. 해발고도 3,800m 에서 시작되는 슬로프로, 세계 월드컵 경기 중 가장 높은 코스다. 선수들은 3.7km 거리와 885m 고도차를 극복하며 최고 시속 약 135km 에 도달한다. 관중들에게도 “그란 베카”가 특히 아름다운데, 4,000m 급 봉우리 여러 개에 둘러싸인 특별한 풍경 덕분이다. 피니시 구역에서 전 코스의 2/3 정도가 보이는 장점도 있다. 스키 팬이라면 어디에서도 불수 없는 진풍경이다!

2. 눈 위를 둥실둥실, 알레취 아레나(Aletsch Arena) 스노우슈 투어

“발레(Valais) 출신 터프 가이”, 이 사람은 누구인가? 4,000m 급 봉우리가 갑자기 더 이상 그렇게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노우슈 선구자인 에델베르트 쿰머(Edelbert Kummer)와 함께 그가 제일 좋아하는 알레취 숲 투어에서 그 답을 알아볼 수 있다. 알프스 최장 빙하와 웅장한 발레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숲속에서 스노우슈 투어로 화려한 장관을 만날 수 있다.

알레취 아레나 지역에는 차량 금지 마을이 여럿 있고, 햇살 가득한 고원 지대는 겨울 천국의 진면목과 발레(Valais) 주의 매력을 발산한다.

관광청 매니저에서 스노우슈 선구자로
케이블카를 타고 모스플루(Moosfluh)에 오르면 그 자리에 멈춰 그저 바라만 보게 된다. 이런 풍경이라니! 능선 위에서 시선이 알레취 빙하 위를 자유롭게 떠다닌다. 웅장하고 거대한 눈과 얼음의 강은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든다. 에델베르트 쿰머는 참가자들에게 잠시 시간을 준 뒤, 말한다. “여기 바로 앞에 서면 더 화려한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에드(Ed). 에델베르트가 더 선호하는 호칭이다. 그 누구보다 이 지역을 더 잘 아는 그다. 리더알프(Riederalp) 관광청에서 25 년 넘게 매니저로 일했던 그다. 20 년 전 조기 퇴직을 한 뒤로 그는 알레취 빙하 근교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많은 이들을 이끌었다. 1990 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가이드 스노우슈 투어를 시작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다. 80 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시작하기란 좀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스노우슈를 보았죠.” 그는 기억한다. 이 이상스러운 최신 스포츠에 고객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에드가 나뭇조각으로 대충 만든 스노우슈를 신고 밖으로 나갔던 시절, 그 매력을 이해하는 사람을 거의 없었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난지 오래다. 스노우슈 투어는 스키 스쿨만큼이나 관광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알레취 지역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마을과 이 완만한 능선 위에는 햇살이 가득하고, 여기까지는 케이블카로 쉽게 오를 수 있죠.” 노련한 관광 전문가가 설명한다. 스노우슈 루트는 대부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가이드 없이 투어에 나서도 무리는 없다. 하지만 가이드와 함께라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비밀 장소를 발견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자연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에드가 감탄 속에 멍하게 빙하를 응시하는 참가자들을 현실로 불러낸다. 오늘 그가 이끌어갈 여정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이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루트다. 참가자 모두가 스노우슈즈를 바르게 신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다. 그리고 나면 서쪽을 향해 눈 밭에 길을 낸다. 이 루트는 공터와 작은 계곡을 지나는데, 기괴한 모양의 바위나 얽히고설킨 나뭇가지가 눈 위를 뚫고 나온 장관이 등장하기도 한다. 겨울 풍경의 고요가 커다란 신발을 신은 참가자들을 집어삼킬 기세다. 고작 25m 거리에서 스키어와 보더들이 피스트 아래로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쾌적하고 쉬운 코스는 엄청나게 쌓인 눈 풍경 속을 가로지르는데, 명상적인 효과를 준다. 에드는 갑자기 멈춰 서 땅 위에 쌓인 눈을 가리킨다. 동물 한 마리가 남겨둔 희미한 발자국이 보인다. “자연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한겨울에도, 이곳에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존재가 있죠.” 백뇌조, 흑뇌조, 토끼와 여우가 눈 위를 지나다닌다. 운이 좋다면 이런 소심한 동물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흔적을 관찰하는 동안 에드가 다 설명해 줄 것이다. 어떤 동물이 무엇을 사냥하던 흔적인지 말이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든 상관없이.

“스노우슈 투어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자유. ‘영혼을 위한 연고’죠.” 에드가 말한다.

저 멀리 웅장한 봉우리가 시선과 맞닿는다

알레취 빙하를 뒤로하고, 이 투어의 다음 하이라이트가 더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동에서 서까지 봉우리가 연이어 등장한다. 특히 4,000m 급 봉우리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높이의 봉우리 28 개는 산악인들에게 마법 같은 존재였다. 마테호른(Matterhorn)은 이들 중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존재다. 바이스호른(Weisshorn)은 가장 새하얗고, 돔(Dom)은 가장 높다.

“모든 봉우리의 이름을 알지는 못해요.” 에드가 고백한다. 하지만 이야깃거리 하나가 이미 준비된 상태다. “저기 뒤편으로 플레취호른(Fletschhorn)이 있죠. 원래는 높이가 4,001m 였어요. 하지만 1950 년에 새로운 측량법이 도입되면서 하룻밤 새 산 높이가 몇 미터나 줄어들었죠. 그 바람에 4,000 미터 급 봉우리라는 자격을 잃게 됐어요. 하지만 고봉 정복자들이 이 봉우리에서 멀어질까 두려웠던 동네 사람들은 1980 년대에 봉우리를 더 높이기 원했죠.” 하지만 산봉우리에 성형수술을 할 방도는 없었다. 지금은 “겨우” 3,985m 높이 밖에 안되는 플레처호른이지만, 이 대단한 파노라마에 우뚝 솟아 존재감을 과시한다.

자연의 광활하고 눈 덮인 고요의 풍경이 주변으로 펼쳐지고, 그 안에 조금 더 머물게 만든다. 에드는 겨울마다 방치되어 있는 오두막 하나를 알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한 치즈와 건조육, 영양 만점의 발레식 호밀빵은 이 호화스러운 풍경에 에너지를 더해 준다. 간식을 조금 먹은 뒤, 에드는 다음 구간으로 향하자고 참가자들을 서두른다. 이 투어에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800 년이나 된 나무와 발레의 터프 가이
에드는 참가자들을 북쪽으로 이끌고, 언덕을 내려간다. 꽤 모험적인 구간이지만 노련한 스노우슈 가이드가 잘 안내해 준다. 넘어지지 않고 언덕을 내려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사실은 사람들이 가끔 넘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에드가 미소를 지으며 고백한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그 넘어진 사람이 내가 아닐 때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별일 없어요." 오늘 투어에서 마지막으로 알레취 빙하가 다시 한번 온전히, 화려하게 등장한다. 에드와 참가자들은 나무를 뒤로하고 사라진다.

"여기에서는 그 무엇으로부터든 벗어날 수 있어요. 멀리, 저 멀리 말이죠.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되죠." 에드가 이야기한다.

소나무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나간다. 잣까마귀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지저귄다. 에드의 눈빛이 더욱 밝아진다. 알레취 숲은 이 여정 중 그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완전히 혼자죠." 알레취 숲은 알레취 빙하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933 년부터 보호받고 있는데, 고대 숲의 개성을 담뿍 담고 있다. 일부 잣 소나무는 그 수령이 800 년이 넘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중 일부는 1,000 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기괴한 형상의 나무 둥지 앞에서 에드가 멈춘다. "이 분이 발레의 터프 가이랍니다." 미소를 짓는다. 이 스위스 잣 소나무는 사실 죽었다. 작은 껍질 조각으로 이어진 가지 하나만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에드와 함께 알레취 숲에 간다면, 다른 발레 "주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발레의 와일드한 레이디, 발레의 지친 아저씨 등을 소개받게 된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의 기이 현상에 감탄하며 에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다. 리더푸어카(Riederfurka) 산장이 문명의 흔적과 함께 시야에 들어올 때는 실망감이 들 정도다.

리더알프(Riederalp)의 골프호텔(Golfhotel)의 테라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참가자들은 하루의 잔상을 마음 깊이 새기며 행복에 젖는다. 이 대단한 체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행복이 스노우슈 투어 최고의 보물이죠." 에드가 말한다.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내일 스노우슈 투어요? 그럼요, 좋죠. 이미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알레취 숲에 가 보신 적 있나요?"

3. 집 떠나 새로운 집으로, 브리엔츠(Brienz) 호수

겨울 카약은 추위만 빼면 그 모든 것이다. 따뜻한 드라이수트가 브리엔츠 호수의 겨울 풍경 속에서도 편안한 체험을 보장해 준다. 데이브 스토리(Dave Storey)가 직접 발견한 것이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가파른 절벽과 신비스럽고 분위기 있는 풍경, 자연의 힘을 보여준다.

뵈니겐(Bönigen)은 인터라켄(Interlaken)과 접한 브리엔츠 호수 남쪽 면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알프스의 웅장한 산비탈 사이에 있다.

카약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데이브는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카약에 열정적이었는데, 스위스에서 일생의 꿈을 이뤘다. 브리엔츠 호수에 그가 소유한 카약 스쿨을 설립하면서다. 고객들이 카약의 마법을 체험하게 도와주는 것은 데이브에게 직접 어딘가로 노를 저어가는 것과 견줄 만큼 벅찬 일이다. "입문자들이 열정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참 대단하죠."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날씨가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언제나 독특한 체험이니까요.” 데이브가 설명한다.

호텔 오버랜더호프(Hotel Oberländerhof) 뒤에서 쨍그랑 땡그랑 소리가 울린다. 간밤에 보트가 얼어버렸다. 씨름 한판으로 데이브는 카약을 얼음 액자에서 끄집어내 눈과 얼음을 털어낸다. 고객들과 만나기 전, 이 잉글리쉬맨은 혼자 호수에서 노를 젓는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눈과 추위는 노련한 카야커를 눈곱만큼도 밀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겨울은 카약 하기 최고의 시간이죠.” 열정적으로 이어가는 그다. “호수에 독특한 분위기가 가득한 때거든요.” 사실, 겨울 호수에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다. 겨울 호수에는 운항하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어 유리처럼 매끄러운 수면 위로 온전한 고요가 내려앉는다.

얼음 같은 물 위로

노란 미슐랭 캐릭터를 닮은 고객들이 둥그렇게 모여 웃는다. 드라이수트에서 넘치는 공기를 빼면서다.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이다. 흥분이 천천히 상승한다. 마른 땅 위에서 몇 차례 연습하고 나면, 얼음 같은 물로 향할 시간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방법을 터득하는 데 몇 차례의 노 젓기 연습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코치가 주는 유용한 팁도 항상 있다. “보트가 여러분 몸의 일부라 생각하세요.” 방향을 돌리는 방법을 보여주며 데이브가 설명한다.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는 그다.

패들 파라다이스

옥빛 호수는 유리같이 맑다: 절벽 근처로 노를 저어가면 둥실둥실 떠 있는 기분이 든다. “브리엔츠 호수는 그저 독특해요.” 데이브가 신이 났다. 두 개의 산맥 사이에 놓여 있는 호수는 자연이 선사하는 모든 것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입증한다. 호수의 둑 대부분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휴식을 위해 어디든 잠시 멈출 수 있죠. 자연의 천국이에요.”

스위스와 사랑에 빠지다

데이브는 사실 스키 훈련 코스 강사로 2 주 동안만 스위스에 머물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게 벌써 10 년이 넘은 얘기다. 사랑이 그를 여기에 계속 머물게 했다. 물리 치료를 받다가 꿈의 여인을 만났고,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다. 이 사교적인 잉글리쉬맨은 곧 정착을 결심했고, 겨울 스포츠 업계에서 직업을 구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진정한 네이처 러버로서 데이브가 그리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다시 밖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정말 원했고, 패들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죠.”

브리엔츠 호수로 여행을 갔을 때, 이곳에 빠져 버렸다. “너무 고요했고, 노를 젓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데이브가 추억에 빠진다. “여기에 카약 투어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결국 이 계기가 데이브에게 자신이 소유한 무언가를 세우자는 자극이 되어 주었고, 이 아이디어 하나로 한동안이나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

“고요가 흐르는 순간, 물 위로 반사되는 산봉우리를 볼 수 있죠.” 데이브가 팁을 준다.

주차장에서 인생의 꿈을 이루기까지

뵈니겐의 호텔 오버랜더호프 뒤에 있는 한 칸짜리 주차장에서 단 다섯 척의 보트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제 하이타이드 카약 스쿨(Hightide Kayak School)은 뵈니겐의 호숫가 리도(lido)에 자리 잡았다. 여기에서 일 년 내내 투어와 강습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은 가족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쉽게 이뤄진 일은 아니다. “야외 스포츠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쉬운 것은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아니에요.” 데이브가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 팀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단한 열정이 투입된 일임은 분명하다.

4. 평창을 찾았던 프리스타일 스타의 엥겔베르크(Engelberg)

탐험가이자 돌아온 탕아, 결기 있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괴짜 같지만 조용한 사람이 한 명 있다. 바로, 파비안 뵈쉬(Fabian Bösch)다. 중앙 스위스의 프리스타일 스타기도 하다.

그의 고향, 엥겔베르크-티틀리스(Titlis)는 중앙 스위스 최대의 겨울 및 여름휴가지다.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 매력적인 마을, 엥겔베르크과 알프스 봉우리, 티틀리스 산은 가족, 초보자, 전문가를 위한 다채로운 액티비티를 선사한다. 그래서 잊지 못할 산악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영재 어린이.
월드 슬로프스타일 타이틀은 이미 만 17 세에 거머쥔 뵈쉬는 불과 1 년 후인 2015 년 미국 X 게임 빅에어(Big Air)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로 인해 2004 년 이래 세계 최대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스위스인이 되었다.

눈 내린 고향.
눈이 내린 고향에서 그는 평온해진다. 그가 얻은 성공의 근원은 바로, 스노우 스포츠에 대한 열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관 밖으로 다채로운 코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스키장 중 하나가 펼쳐져 있는 숙명을 타고난 그다.

세계 여행가.
뵈쉬는 한 시즌에 네 개에서 다섯 개의 대륙을 연달아 찾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형 스키 지역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그의 고향, 엥겔베르크를 별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고향 친구들이다.
“집에 들를 기회가 생기면 미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스키 여행을 계획해 두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즐거움이죠.”라고 뵈쉬가 말한다.

하루는 스키 피스트 위에서, 다음 날은 오프 피스트로.
뵈쉬와 그의 친구들은 피스트를 따라 질주한다. 물론 공중회전도 하고, 오프 피스트로 내려가기도 한다. 날씨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말이다. 아이들처럼 눈 위에서 신나게 움직이며 전문 프리 스키어 다운 묘기를 부리며 속도감 있게 활강한다.

웬만하면 공중에서.
파비안 뵈쉬는 순식간에 점프 묘기를 성공해낸다. 엥겔베르크 스키 클럽 회원이 되어 이 기술을 연마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레이싱 룰을 따르는 것보다 묘기를 부리는 것에 더 심취했던 그는, “공중회전을 하는 게 그냥 더 훨씬 재미있더라고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프리스타일로 종목을 바꾸었다.

“엥겔베르크는 굉장히 도전적인 스키장이죠. 그래서 이곳의 코스를 좋아합니다.”

평범하기를 거부하는 별난 청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에도 다른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동안 한쪽 팔로 에스컬레이터 레일에 매달려 올랐던 그다. 파비안 뵈쉬는 그의 인상적인 성과들로 인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지만, 이 평창 에스컬레이터 영상물 하나로 전 세계에 유명해졌다. '20 년이나 봤지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라고 적어 웃음을 자아내는 영상물이다.
https://www.facebook.com/buhsch/videos/after-20-years-i-still-couldnt-figure-out-how-this-thing-works-am-i-doing-it-rig/2132903500271766/

"스포츠에서의 성공이 선수로서의 성공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라고 다부지게 말하는 그다.

핵심은 바로 이것.
겨울 스포츠의 천국 엥겔베르크는 2,000m 나 되는 고도차를 선사한다. 프리라이딩에 적합한 지형과 아프레스키(après-ski)에 강한 스키장이기도 하다. "엥겔베르크는 전 세계 최고의 스키장과 견주어도 뒤처질 것이 없는 곳이죠."라고 자부심 있게 말한다.

겨울 천국
360°를 돌아봐도 겨울 천국이다. 티틀리스 로테르(Titlis Rotair)는 산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케이블카 차체가 360° 회전하는 세계 최초의 케이블카다.

겨울이 7 개월이나 계속되는 엥겔베르크는 그에게 천국 같은 고향이다. 10 월부터 5 월까지 계속되는 겨울 시즌 동안 총 합산 길이 82km 의 스키 피스트들 중에는 최장 12km 의 피스트도 있다. 그 외에도 총 합산 길이 49km 의 겨울 하이킹 트레일이 얽혀 있고, 총 합산 길이 35km 에 달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일도 뻗어나 있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